

아이티,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

강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에서 생존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어 세계 교인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박하게 요청된다. 국제 사회의 발빠른 응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생존자들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번 아이티 지진은 20년 만의 최대 강진으로 이로 인한 희생자 수는 당초 4만~5만 명으로 추정됐으나, 지금까지 수습

버린 상황에서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의 어려움도 극에 달하고 있다.

12일 지진 발생 이후 5일이 경과했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생필품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민심이 흉흉할 대로 흉흉해진 가운데, 최근

역에 마련된 간이병원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부상자들이 찾아 들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치료하기에는 의료 시설과 약품이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지에 파견된 의료팀의 한 의사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30% 정도가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니 24시간 내 사망 위험이 있으나,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려 해도 도로가 파괴되고

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생존자들은 현재 각종 호흡기 질환과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신종플루 등 전염병과 수인성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외에도 재난 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생존자들이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 타임지 등은 우려를 표실했다.

◇거대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에 의지= 한편, 이같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지진 참사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17일,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폐허가 된 포르토프랭스 대성당 앞에는 교인들이 모여 들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이티인으로 두 자녀의 어머니인 몽테지르 레이몬(27)은 “여기에 살아 있다는 데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많은 아이티인들이 유엔과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이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며 원망하고 있다. 오늘 나는 아이티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말했다.

아이티인들을 위한 기도는 아이티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복음연맹(WEA)은 카리브해복음주의협의회(EAC)로부터 지속적으로 아이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아이티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는 “아이티인들이 이번 재난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관대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 놓길 바란다”고 기도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AC는 가장 최근 보고를 통해 아이티에서 생존한 이들이 크나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진 참사 이후 즉시 긴급 구호에 투입된 구호 요원들 역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티 이민자들의 눈물 섞인 기도회도 연일 열리고 있다.

(2면에 계속)

아이티 돕기 위해 남가주 교계 나섰다

아이티 난민을 돕기 위해 남가주 교계가 나섰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지용덕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이정현 목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LA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티 난민을 돕기 위한 재난 구호기금 모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회 지용덕 회장과 남가주목사회 이정현 회장은 “남가주 교계가 공동으로 모금 창구를 단일화한다. 성도

들의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

하고, “기금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교회와 남가주목사회 그리고 각 지역 교회와 목사회가 함께하는 재난 구호 기금 모금의 동참은 수표는 KCSC로 발행하여 교협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문의: 323-735-3000
교협 사무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폐허 속에서 찬송... “살아있다는 데 감사”

한 시신 수만 7만 구를 넘어서면서 사망자가 15만 명에서 최대는 20만 명일 것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수는 15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구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구호 물자 부족으로 인한 고통 가장 커=현재 아이티에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구호 물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당국의 행정이 마비되어

에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등 중심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약탈과 무차별적 총기 난사 등 폭동 조짐까지 일고 있어, 생존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배로 치솟고 있다. 한편, 치안의 약화는 또다시 구호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고 현지 구호 단체 관계자들은 밝혔다.

구호 물자의 부족은 부상자들의 치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MSF)에 따르면 포르토프랭스와 인근 지

폭동의 위험이 일고 있어 막막할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염병은 생존자들에 대한 또다른 위협이다. 현재 아이티에서는 높은 기온 속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원천에 뒤틀린 격으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는 이전에도 인구 중 결핵환자가 130만 명, 에이즈 환자가 20여만 명에 달하는 등 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번 지진 참사로 인해 당국의 보건 위생 체계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아이티 생존자들. 하지만 구호품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아이티 난민 위해 써주세요”



나성영락교회 이희선 장로가 적십자 CEO 폴 솔츠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정인관 목사, 이희수 부장집사, 이희선 장로).

나성영락교회, 적십자에 8만불 기부

나성영락교회(림형천목사)가 19일 오후 2시 적십자 본부를 방문, 아이티 난민 구호를 위한 성금 8만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 받은 적십자 본부 CEO 폴 솔츠는 “성금을 전달해준 나성영락교회에 감사를 표한다.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티 난민들을 위해 쓰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6일 아이티 난민 구호를 위해 당회를 열고 성금을 적십자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태근 기자)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이사고인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2424USA.com | Tel: 310-808-9350 / Fax: 310-808-9353 |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INSPECTION AND REPAIR CENTER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美 동성결혼 반대법안 합법성 여부 재판 중

결혼의 목적 놓고 의견 대립 보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의 합법성 여부가 결국 연방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동성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심리 절차가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측 대리인으로는 자유주의 할리웃 행동주의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은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 간 대선 관련 재판에서 부시측 변호인을 맡았던 올슨 변호사, 고어측 변호인을 맡았던 보이스 변호사가 한 배를 탔다.

피고측 대리인은 에리조나 주 기독교 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지원을 받는 변호인단으로서 노련한 변호사로 알려진 찰스 쿠퍼가 이끌고 있다.

금번 재판의 결과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동성결혼이 전미에서 합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커플에 결혼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의 문이 열렸으며, 그 후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또 다시 금지됐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역시 2009년 5월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것이 되고 있다고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인 달 윈게르트 변호사는 밝혔다.

재판에서 동성결혼 옹호 변호인단은 "결혼이 점진적으로 아이 지향적에서 어린 지향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변호인단은 "결혼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아이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은 동성결혼 옹호 입장에 대해 1) 결혼의 변화가 부정적이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2)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의 대다수 공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그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에 의해 자라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결혼에 나타난 주요 변화가 향후 의미심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혼의 의미는 무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결혼에 나타난 변화는 가족과 우리의 문화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한 마디로, 결혼에 대해 이런 혁신적인 사고는 우리 문화에 거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임형진 기자>

성경 작성 BC 10세기부터? 最古 히브리어 글 발견

다윗왕 시대 것으로 확인... 구약 작성 연대 4세기 앞당겨

기원전 10세기 다윗왕 시대의 히브리어 글이 발견돼, 구약성경의 작성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수 세기는 앞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들은 구약성경이 처음으로 작성된 연대를 기원전 6세기로 추정해 왔다. 최초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문서 중 이보다 앞선 연대의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쓰여져 있었으며, 발굴 즉시 히브리대학교로 옮겨져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곳 연구진들은 도기 분석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글이 다윗왕 시대에 쓰여진 것임을 곧 밝혀냈지만, 해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마침내 글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것은 예루살렘 하이파대학교의 성서학 교수인 게르손 갈릴(Gali) 박사. 그는 쓰여진 문자가 히브리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내용 중에 히브리어에만 고유한 단어들의 사용과 히브리 문화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발견된 히브리어 글이 다윗왕 시대인 기원전 10세기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까지 추정되어 온 구약성경의 작성 연대를 최소 4세기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미국 MSNBC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은 약 18개월 전 이스라엘 엘라(Elah) 계곡 인근인 킬벳 케야파(Khirbet Qeiyafa) 지역에서의 문화재 발굴 당시 발견됐다. 글은 가로 15cm, 세로 16.5cm 크기의 사다리꼴 형태를 보이는 도기 조각에

그는 "글에 사용된 'asah(했다·did)', 'avad(일했다·worked)' 등의 동사는 타 지역 언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특히 'al-manah(과부·widow)'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만 그 의미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갈릴 박사는 이 글이 '너는 (그것을) 하지 말지니 (신을) 경배하라 어린 아이와 가난한 자와 노예와 과부를 보호하고 이방인을 도우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서 등 구약성경의 일부 내용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이스라엘 엘라 계곡 인근에서 발굴된 기원전 10세기 다윗왕 시대의 히브리어 글. ©하이파대학교 제공

로버트 킹 대북특사 "북미 관계, 인권에 달렸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Robert King) 대북인권특사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한 킹 대북특사는 "인권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세

월요일 북측이 오랜 적대 관계를 깨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또 한번 발표됐다. 미국에

시민권 보장 부문에서 북한에 각각 최저 점수인 7점을 매겨,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의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했다. 이 단체는 1973년부터 각각 인권 수준을 평가해 왔는데, 북한은 올해까지 3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에 꼽히는 것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4개 국가를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비자유국(Not Free)'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 47개국이 비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에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적도 기니 총 9개 국가가 선정되었다. 한국은 정치적 자유에서 최고 점수인 1점, 시민권 보장에서는 한 단계 낮은 2점을 부여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4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보고서를 발표한 40년 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권 상황이 이처럼 지속적 후퇴를 보이는 것은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들이 더 강성해지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 상황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계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라며 "북한의 상황이 충격적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더 크게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발언은 지난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는 190여 국가의 인권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를 통틀어 개인의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했다.

12일 발표한 '2010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2010)' 보고서에서 프리덤 하우스는 정치적 자유와

보고서는 북한이 "마르크스-레닌 주의 단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민간 시장 통제와 화폐 개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의 자유가 축소되어 왔으며, 종전보다 점수를 더 낮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티는 2008년 4번의 허리케인 이후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다. 이같은 지진은 유례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주요 교단들이 아이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구제위원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하고 아이티를 위한 구호 기금과 물품을 모으고 있다.

우선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교단 페이스북에 '프레이어 월(Prayer Wall)'을 마련해 놓고 아이티를 위한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남침례교협회(SBC)도 아이티에 구호품을 파견하는 동시에 각 회원 교회들이 아이티 참사를 두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순서를 특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순현정 기자>

<1면에 이어>

14일 미국 일리노이 주 디케이터 시의 한 교회에는 약 1백 명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라머시 살론 씨는 현재 94세인 그녀의 어머니와 사촌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살론 씨는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다. 전화로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늘 정정하셨다"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는 조셉 알프레드 씨는 목회자인 그의 형의 생사를 알아보고 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아이티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박해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조요한
지사장: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 Tel: (213) 739-0403, 0404 / FAX: (213) 739-0408
Mail: newspaper@chdaily.com

주소: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NY/P.O.Box 541136 Flushing, NY 11356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인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 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를 **50% 할인** 드립니다
~~\$200^{up}~~ Regular Price
\$100^{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앞서가는 미용이름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 매리퀴린드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 있는 곳

“자녀세대 위해 페이스북으로 열린 대화 나눠요”

[이민교회 문답] 여덟번째 영은장로교회 변운선 목사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망하고자 한다.

여덟째 만남은 영은장로교회 담임 변운선 목사다. 변 목사는 현재 미국장로교 소속 한미노회 노회장으로 노회원을 섬기고 있으며, 영은장로교회에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총신대에서 BA와 신대원에서 M.Div를 마쳤으며, 90년 이민 이후 한양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 2001년 영은장로교회로 청빙 받았다. 변 목사는 한미노회에서 안수 받은 최초의 목회자이기도 하다.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교인의 평균 나이가 높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과 동시에 부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양적 부흥과 교인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질적 부흥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 해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와 친교가 임소문을 통해 퍼져 교회를 찾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앙 전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없

습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EM들만 봐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 한번 개최 한 적이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고, 신기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을 EM청빙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한 자녀들이 자신들과 교회에 적합한 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일조할 거라 생각해서 교역자 청빙에 목소리를 내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청빙위원으로 활동하면 교역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고 자신들과 함께 있어줄 교역자만을 뽑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아는 역사의식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문화 속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한 열린 시각 등이 교역자를 뽑는데 훨씬 좋을거라 봅니다.

부모 세대는 신앙은 뜨겁지만 자녀들 보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린 시각을 가진 자녀들이 교역자를 뽑는게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신앙전수를 위해서 자녀세대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녀세대들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상담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사용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화뿐만 아니라 기쁘고 슬픈 일 등 자녀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세대에 눈높이를 맞추다보니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더 열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회 차원에서 자녀세대를 위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계속될 것인데 매달 모이는 것은 어려워도 2-3달에 한번은 다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교 합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간 노회원간 화목과 화합을 다집니다. 지난해 노회에 경사가 있었습니까. 의



변운선 목사.

미가 크죠?

지난해 1월 한미노회 설립 25주년 및 존속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노회로 잠정적 조건으로 존속을 승인받아 시작됐던 한미노회가 미국장로교 산하 170개의 노회 중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고 영구 존속을 승인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2010년은 노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태근 기자)

미주 기아대책, 한·미 연합 모델 되길

정정섭 회장, 미 서부지역 기아대책 설립 알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이 LA를 방문, 18일 오후 4시 클라리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서부지역 기아대책 기구 설립을 알렸다. 기아대책은 1971년 설립된 NGO 단체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찾아가 생존과 자립을 돕는 한편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한다.

이날 정 회장은 “미주에는 한국과 다른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아대책을 설립하려고 한다.

LA에 오기 전 이미 다른 지부 창립에 배를 드렸다”며 “서부뿐만 아니라 미주 모든 주에 기아대책을 한 지부씩 설립 하길 원하고 미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인교와 미국인이 참여하는 연합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 회장은 19일 오후 6시 클라리온 호텔에서 기아대책 서부지역 기구 설립 취지 및 설립회도 열었다.

(이태근 기자)



미 서부지역 기아대책 기구 설립에 관해 설명하는 정정섭 회장.

리빙스톤, 개원 감사예배 드려

박경일 전도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완성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의료봉사단체 리빙스톤 CDC(Livingstone CDC)가 지난 16일 오후 2시 비치 블러버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5명의 사장과 미국인, 일본인 목사 2명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으로 드려졌다.

리빙스톤 박경일 전도사는 “리빙스톤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저희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기에 완성시킬 것을 확신합니다”고 개원 소감을 전했다.

리빙스톤에는 지금까지 9명의 내과 의사와 3명의 치과의사가 지원한 상태며, 주 2회 치료를 위해 20여명의 봉사자와 더 많은 치과 의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리빙스톤 CDC가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꿈, 비전, 사랑의 마음 심는다

LA 성시화운동본부(이성우 목사)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6회 미주체험학교를 실시한다. 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국 방문 체험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해 해마다 미주체험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미주체험학교에 참가하는 이들은 전국 각 도시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에서 추천받은 중고등학생, 인솔 대학생, 목회자 등 모두 102명이다. 참가자들은 11박 12일의 일정 가운데 USC와 UCLA, 스탠퍼드, 버클리 등의 미국 대학과 크렌쇼교회, 수정교회, 새들백교회 등의 미국 교회를 방문한다. 또 홈스테이와 목회자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 미국인과 목회자 자녀 친구들 사귀는 시간도 가지며, 미주체험학교의

최고 모미인 힐리스 사역 동참과 맥시코 단기 선교도 떠난다.

LA 성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는 “해마다 개최하는 미주체험학교가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 213-384-5232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제43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 및 원로목사 초청위로 잔치

■ 일 시: 2010년 1월 24일(주일) 오후 4시
■ 장 소: 빛과 소금교회(이정현 목사 사무)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PCH 와 Vermont)
T. 310-326-0300 / 310-749-0577

주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PASTOR!"



이임회장: 석태운



취임회장: 이정현

**** 제43대 남가주 한인목사회 임원명단 ****

회 장: 이정현 목사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부 회 장: 최학량, 변영익, 오세훈, 김영대, 신원규, 권영국, 박종대, 이희철, 김하워드, 강승용, 황영대, 김기복, 박은중, 이성도, 현에스더 목사
협력부회장: 조현, 최순길, 정요한, 손천식, 이동중, 나주목, 서요한, 박성진, 이춘준, 안기정, 송영일 목사
- 각 지역 목사회, 교회협의회 회장단
총 무: 김원락 목사
부 총 무: 심명구, 한진, 엄규용, 조성호, 김명선 목사
협력부총무: 유창열, 김승덕, 정승룡, 전규룡, 강정옥, 정부르스 각 지역 목사회, 교회협의회 총무단
서 기: 박순길 목사
부 서 기: 김시영 목사
회 계: 김관중 목사
부 회 계: 안병권 목사
감 사: 최선호, 추창호 목사

<p>〈특별분과 위원장〉</p> <p>한미목회자협력위원장: 이영훈 목사 회칙 수정 위원장: 석태운 목사 세미나 실행 위원장: 박성근 목사 목회자재육성위원장: 강 풀 목사 미래목회자상실예방위원장: 손천식 목사 목사장로성가실행위원장: 박종대 목사 다민족목회자실행위원장: 김하워드 목사 개혁교회지원실행위원장: 김익현 목사 목회자지녀장학실행위원장: 임형현 목사 세계선교실행위원장: 한기홍 목사 특별 구제 실행위원장: 최홍주 목사 한미교류평신도실행위원장: 임예빈호사</p> <p>〈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p> <p>박성원, 서영석, 장성길, 백영중, 박평식, 유근주, 이기홍, 노승용, 박창우, 김클레어, 백형권, 하기완, 민병수, 유병철, 이문규, 임승향, 정영성, 원소갈렛, 김철민, 신성준, 장도원, 이순철, 전성환, 김용우, 김재수.</p>	<p>〈분과위원회 위원장〉</p> <p>원로분과위원장: 박희민 목사 학술편과위원장: 박성근 목사, 인문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 목회분과위원장: 진유철 목사 선교분과위원장: 김영길 목사 사회분과위원장: 박모세 목사 구제분과위원장: 박영민 목사 상담분과위원장: 홍성관 목사 이동분과위원장: 최순길 목사 친교분과위원장: 신사무엘 목사 홍보분과위원장: 이정현 목사 전도분과위원장: 신상원 목사 음악분과위원장: 송규석 목사 예능분과위원장: 박영남 목사 장애우분과위원장: 추영수 목사 청소년분과위원장: 여병현 목사 원리분과위원장: 엄규서 목사</p> <p>예배분과위원장: 권도일 목사 기회분과위원장: 이상열 목사 신학분과위원장: 임성진 목사 교육분과위원장: 김 호 목사 이단분과위원장: 한선희 목사 교정분과위원장: 이병희 목사 복지분과위원장: 최병수 목사 의료분과위원장: 김인철 목사 여성분과위원장: 백지영 목사 섭외분과위원장: 강규석 목사 영성분과위원장: 임윤택 목사 심조분과위원장: 이철훈 목사 체육분과위원장: 박후식 목사 울동분과위원장: 김영화 목사 군선교분과위원장: 백형로 목사 가정사역분과위원장: 정진욱 목사</p>
--	---

굿네이버스 전문적인 긴급구호활동 본격화

최대 20만 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티에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 긴급구호팀은 한국 NGO단체 중 처음으로 아이티 강진 피해지역에 도착, 긴급 구호에 착수했다.

굿네이버스측은 "긴급구호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생명이 최대한 빨리

국과 아이티 인접 국경지역으로 이동, 육로로 아이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도착, 신속하게 현지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착수했다.

현재 피해현장에는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피해현장 복구 및 국가 행정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에서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 인력 20명을 파견했다. 아이티 긴급구호 모금 실시된 이래 첫날 하루 만에 모금액이 10만 불을 넘어, 17일까지 3일 만에 50만 불 가까이 모은 상태다.

굿네이버스는 "아이티 지진 재난사태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과 재난복구 사업

<아이티 파견 가능한 의료봉사자 긴급 모집>

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까지 말하며 이 시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을 통해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초기 자금으로 긴급구호물자를 배분하고 구호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새벽 2시 굿네이버스 아이티 긴급구호팀 1진은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 도착해 도미니카 주재 유엔人道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 구호활동을 위한 NGO등록을 완료했다. 16일 저녁부터 도미니카 공화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비해 UN군, 아이티 현지 경찰 및 아이티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이티 내부의 주요 공항, 항만시설 등이 이번 지진으로 파괴돼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지대인 바라호나(Barahona)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후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피해현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굿네이버스는 한국과 미국

은 장기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진 파견 및 의료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진 피해자들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굿네이버는 의료봉사자 가능한 의사, 간호사, 약사들을 수시 모집하고 아이티 긴급구호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봉사 및 후원문의 877-499-9898.

(지재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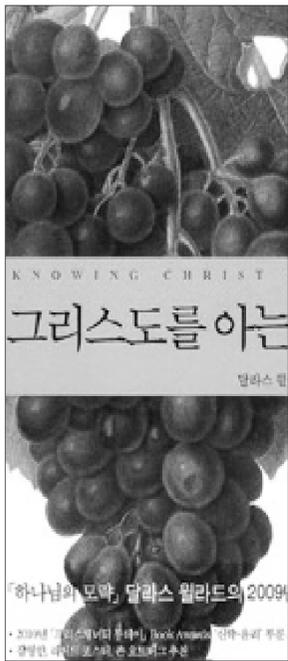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과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주는가? "하나님은 분별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봐주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분별력을 사용하기 바라신다. '착하고 상냥한 종이 되고, 영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착하고 상냥한 종이 되라. 그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이 모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영성하게 하는 자를 싫어하듯이, 지적으로 태만한 자도 싫어하신다."

이 책은 지식에 관한 책으로서, 삶과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앙을 지식과 별개의 것으로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식의 범주 바깥에 제재치함으로써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잘못된 풍조에 대해 논하는 글이다.

윌라드는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적으로 진지한 사람들이 신앙과 삶에서 지식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제대로 찾지만 충분치 않을 수 있는 기독교 특유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모두 그렇듯이, 이 지식도 그저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구든지 가까이 환영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며, 인격에 관한 지식이니 만큼 그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그에 적합한 것을 요구한



다. 하지만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찾는 이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일단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면 객관적인 시험이 가능하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 비길 데 없는 행동과 성품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 윌라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

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채워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감동적으로 일깨워 준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태만을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가 능히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하고 격려한다. "지금 당선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라!"

저자 달라스 윌라드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그는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대변하는 감동의 목소리 역할을 해왔다. 이미 우리 시대의 기독교 고전인 된 <하나님의 모략>(The Divine Conspiracy)을 비롯해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 <영성 훈련>(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하나님의 음성>(Hearing God) <잊혀진 제자도>(The Great Omission) 등 그의 저서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그는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철학과 교수이자 UCLA와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의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로서 설교와 강연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ww.dwillard.org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다.

도서문의) 생명의 말씀사 www.life-book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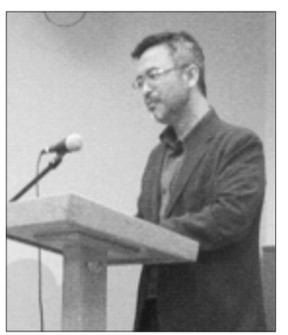
(지재일 기자)

아마존 바나와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남가주 사랑의교회 교육관 119호실에서 LA MOM(디렉터 안기주 집사)이 새해 첫 월례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12월을 한 번 거르고 모인 터라 새해와 맞물려 훨씬 새로운 성령의 기운이 서려있는 듯 힘차 보였고 어느분의 표현처럼 사명감에서 모인 듯 모두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나누며 강령과 선교사의 '소명'이라는 영화를 먼저 보았는데 약 1시간에 걸친 기록영화 타임의 동영상도 보며 모두들 아마존의 생활에 빨려든 듯 보였습니다.

인구가 100명 남짓하여 아마존 지역에서는 가장 소수민족인 바나와 부족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며 열심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 선교사 부부, 살갓을 침투하여 기생하는 벌레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며 쥐고기와 거북이 고기 등 바나와 부족이 먹는 것과 모든 생활 하는 것을 같이하며 이들을 그 외에도 인도 캔디스 강 유역 지역에서 강 선교사님의 가족, 또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과 이에 따른 약품



아마존 바나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령관 선교사.

들의 부족 상황을 목도하며 새해에 MOM의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2015년을 바나와 부족 언어로 된 성경책의 출판 원년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인도 캔디스 강 유역 지역에서 7천개 교회 개척과 그로인한 700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을 꿈꾸며

섬기는 임경수 선교사와 브라질의 부흥으로 브라질인들에 의한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를 이루기 위해 선교지의 신학교 설립 사업으로 섬기시는 이영대 선교사님이 참석해 새 해 힘찬 새 발을 내딛는 저희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선교사에서의 정수기를 어찌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을까만 항상 고민 하시는 선한청지기 교회 권오준 집사님 내외분, 새로 해외로 선교부장으로 섬기게 된 김신 집사님(얼바인침례교회), 새롭게 LA MOM의 회장을 맡아주실 은혜한 인교회 박영 집사님, 한 시간 반 이상을 운전하여 참석하신 두드림교회 유미선, 이영숙, 유도열 장로님, 지난 10여년간 LA MOM을 홀로 지켜온 이영은 집사 내외분, 햇볕선교교회 이윤순 목사님 내외분 등 총 14개 교회들을 대표하여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 새해에는 LA MOM을 통해 동역 교회와 그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정성껏 열을 다하여 섬기리라 다짐합니다.

(기사제공=LA MOM 선교회)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김경섭 목사 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본당에서 김경섭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갖는다.

김경섭 목사는 얼바인 베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행정, 공동체, 영성, 새가족 사역 등을 맡으며 6년간 사역

하다 지난해 7월 청빙 받았다. 김 목사는 현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을 세우고 목회하고 있다. 장소: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840



김경섭 목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2010학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학제>

- 학사(B.A.): 128학점
- 교역학석사(M.Div.): 98학점
-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98학점 = 30학점(교회음악) + 68학점(신학과목)
- 신학석사(Th.M.): 30학점 = 24학점(Course Work) + 6학점(Thesis)
- E.S.L.(Level test: 2010. 1, 11, 오후 7:30, 22 오후 4:30) / 전형료 \$25

<접수 및 개강일>

1. 접수마감일 : 2010. 1. 15 (금)
2. 개강일 : 2010. 1. 25 (월)

<구비서류>

입학원서(1통), 담임목사 추천서(1통), 재정보증서(1통), 최근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각 1 통), F-1 학생일 경우 I-20 Fee \$100, 전형료 \$100

* 위 서류는 본교 소정양식으로 제출(본교 웹에서 다운로드)

<특전 및 장학금>

1. 본교 졸업생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장 통합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장 통합 목사로 이명 가능
3. 각종 장학금 혜택 (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학생, 근로, 동문회, 산돌회, 여선교회, 지교회, 지정장학금 등)
4.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5. 1.5세와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개설

사랑의교회측 “건축 반대 의견 무시 않을 것”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 10일 공동의회에서 개진된 교인들의 건축 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정리, 답변과 함께 건축 홈페이지(sgmc.sarang.org)를 통해 공개했다. 공동의회 당시 94.2%의 교인들이 새 성전 건축에 찬성한 바 있다.

여기에는 건축의 결정과 부지 매입 등 건축 진행 과정이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점, 향후 건축과 관련해 사랑의교회 교인 및 한국교회와의

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천역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인허가를 득하는 일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지만,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건축은 설계, 인허가, 입찰, 시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급적 신속한 공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건축이 결정된 이후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면 건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좌우와 소통하고, 민족과 시대를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추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현재 주차장은 법적 요건의 불가로 좌절되었고, 학교를 운영하며 교회를 이전해 보려는 수 차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번 건축을 준비하면서 투명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었다”고 건축 과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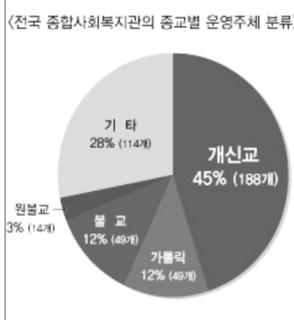
그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랑의교회 건축은 우리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적인 분들도 있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건축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건축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철학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새 성전건축은 바로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의 '사회공헌', 현 주소는 어디인가

기윤실, 한국교회 사회적책임 보고서 발표



기여도와 한국교회 기여 현황을 정리했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개교회 및 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이 많았고, 한국교회 전체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취합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았다”며 “이로 인해 깊이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자평했다.

사회복지단체, 숫자는 개신교가 압도적 먼저 사회복지법인 수는 개신교가 압도적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372곳 중 개신교가 194곳(52.2%)을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불교 104곳(28%), 천주교 58곳(15.6%), 기타 16곳 등이었다(표1 참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 이하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등 전통적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한국교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최근 떠오르는 환경이나 공정무역 등의 영역에서는 더욱 전략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윤실은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놓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을 묻는 질문에 60.3%가 ‘봉사 및 구제활동’을 꼽았기 때문이다.

기윤실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한국교회가 어느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비율로도 2009년 9월 기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 개시된 414곳 중 개신교가 188곳(45%)을 차지, 각각 49곳(12%)을 운영하는 가톨릭과 불교보다 훨씬 많았다(표2). 기타가 114곳으로, 이는 종교단체와 관련없는 민간단체 및 학교법인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기윤실은 “앞으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종교별 운영주체에 대한 조사도 전개할 예정”이라며 “더 구체적인 한국교회 책임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들 뿐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현황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숙인 복지시설의 경우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009년 2월 전국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가 54곳으로 전체 86곳 중 62.8%를 차지했다.

불교가 8곳, 천주교가 5곳, 기타가 19곳이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을 돕는 지역

교인들 질문에 답변... “모든 과정은 적법”

소통과 관련한 점, 건축 진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답변이 달렸다.

특히 건축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

사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고 상대편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확정된 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이 공신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

사랑의교회는 건축 홈페이지와 해당 담당자를 통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교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공감을 얻은 후 건축을 재추진할 순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재추진의 의미를 건축을 중단하라는 의미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겠다”며 “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성도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 진행 과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진행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왔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새로운 건축에 대한 시도들에 대해 수많은 역경과 실패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라며 “예배당을 증축하려는 시도는 서조빌라

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기독교 봉사단체들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종교와 이념을 넘어 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하나될 수 있어야 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모든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인력을 파송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그보다 더 한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기독교계는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낮아져 섬기고, 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이기엔 불필요한 경쟁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섬김과 사랑, 나눔을 통해 저 엄청난 재난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아이티가 하루 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 땅의 백성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교회 신축건물 조감도. 사랑의교회는 현재 새 건물 명칭을 Sarang Global Ministry Center 또는 Heart Center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설]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엄청난 대지진이 지구 반대편 아이티에서 일어났다. 12일 지구 반대편인 라틴아메리카의 최고 빈곤국가인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대 2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진 피해로 대통령궁과 의회, 재무부 등 주요 국가기관들과 병원과 학교 등이 대부분 붕괴되거나 주저앉은 실정이다. 르네 프레발(Preval) 대통령이 울먹이며 국제사회에 구호를 호소할 정도다.

천지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법이다. 때문에 이러한 재난 앞에서 일각에서는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그마한 자 하나에게조차 주를 대하듯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닌가.

이러한 재난을 대치함에 있어, 교회의 활발한 참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다. 이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쓰촨성 대지진,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 등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갖지 못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실제로 현지에 급파된 봉사단의 구호활동은 현지 선교사들의 안내하에 일상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나 브라질 등 아이티에서 멀지 않은 국가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재난 소식을 접한 즉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중인 상황이다.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이기엔 불필요한 경쟁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섬김과 사랑, 나눔을 통해 저 엄청난 재난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아이티가 하루 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 땅의 백성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이티에 한국교회의 사랑이 필요하다

에서 볼 수 있듯, 교회는 단순히 구호 자금 마련 뿐 아니라 봉사인력, 노하우, 지식능력 등에 있어 탁월함을 보여왔다. 또한 이번 아이티 대지진이야말로 더욱 교회의 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이티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인지라 한국에서 봉사 인력을 파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한국으로서는 생소한 나라이기에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한국교회의 힘과 사랑이 조금의 낭비나 소모 없이 온전히 현지에 전달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구단일화가 절실하다. 이미 한국교회회합연대와 한국교회회합방문사단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첫 사업으로 아이티 구호를 내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훨씬 범기독교적이며 범사회적인 연대가 요구되는 상황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이기엔 불필요한 경쟁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섬김과 사랑, 나눔을 통해 저 엄청난 재난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아이티가 하루 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 땅의 백성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동센터도 개신교가 전체 3,013곳 중 1,601곳(53.1%)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윤실이 개신교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들 중 452곳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교단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30곳(6.6%)에 불과해 교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용 기자)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 현황〉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 밖의 종교	계
사단법인	15	5				20
재단법인	3	3	2			8
사회복지법인	86	186	56	14	2	344
계	104	194	58	14	2	372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정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지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의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복지와 교육, 대복지원과 해외원조, 의료, 나눔운동과 자원봉사 등 각 분야 종교별

긴급요청

가난의 땅에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닥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아이티(Haiti) 지진 긴급구호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5. 초기 구호 자금으로 구입할 물품

-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 ◇ 인구 890만명 중 80%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나라.
- ◇ '진흙 쿠키' 로 끼니를 연명하고, 높은 AIDS 감염과 주기적인 허리케인 피해를 입는 곳.
- ◆ 전국민의 90%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주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월드비전 직원들은 비축해 둔 구호 물자를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초기 타겟으로 1만 가정에 구호 물자와 응급 약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버에 있는 재난 물류 센터에서 18톤의 구호 물자를 항공편에 실어, 15일 오전 아이티 공항으로 공수하여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50년이 넘는 구호 사역 경험과 이미 갖추어진 구호 활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 수 있나?

-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 Memo (For) : Haiti Earthquake

차인표-신애라 부부, 아이티 지진에 1억원 기부

아동결연 하고 있는 캠페션 측에 전달



연예인으로서의 '달란트'로 후원자 모집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차인표·신애라 부부.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아이티 지진 참사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신애라 씨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캠페션에 지진 긴급모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아이티 아동들과 결연을 맺어 돕고 있었다.

이들은 캠페션 측에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정확히 검증된 곳에 기부해야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인표-신애라 부부 외에도 캠페션을 통해 아이티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있는 연예인들이 아이티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원더걸스의 리더 선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티 지진 참사와 희생자들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며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먼지 쌓인 성경,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성서원, 제4차 성경나눔행사 실시 중

"비록 잠깐의 실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의 생각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필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을 빌려보고 있지만, 성서원에서 쓰던 성경이라도 한 권만 주신다면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재소자)

성경찬송 출판사 성서원이 미자립교회, 고아원, 교도소, 기타 성경이 필요한 단체에 성경을 나누주는 제4차 성경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책장 속에 숨어있는 성경책을 성경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 기독교 문서 선교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2009년에는 104개 교회에서 신청해 40개 교회 및 단체에 1,000여권의 성경을 보급했다. 김일중 기획실장

은 "처음으로 20권의 성경을 받으신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10분 동안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셨다.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기획실장은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문광고를 통해 찾아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이 보내질 수 있도록 선별하고, 정성껏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주는 등 많은 일손과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아직까지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무보수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은 기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성경 무료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결과발표는 3월 22일 나눔선정결과 게시판(www.bibleanum.org)을 통해 공지된다. 성경발송은 4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붙잡히면 전기곤봉으로 맞거나 겨울에 옷 벗겨 눈발에...

'제2의 예루살렘'이던 평양, 현 지하교인은 몇 명?

60여년간 대대적인 탄압에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오픈도어즈가 북한을 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선정 한 크리스천포스트 보도를 토대로 이 신문은 1945년 해방 전까지 북한에 교회가 2,600곳 있었고, 이 중 평양에만 270여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공산정권 수립 이후 교회는 폐쇄되고 목회자는 모두 농장원 등으로 바꾸어야 했다. 처형되거나 6·25전쟁 이전 남한인 북한 기독교인들이 영락교회나 총천교회 등을 세우기도 했다.

북한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67년 김일성이 '종교는 미신'이라고 한 뒤 기독교인 뿐 아니라 종교인들 모두 처형되거나 추방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양에 불수교회나 칠골교회, 가톨릭 성당, 러시아정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신학원이 있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수령님'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60여년간 갖은 고초를 겪거나 순교했다. 1957년 평북 용천군에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말라고 했던 사실이 적발돼 이만화 목사 등 36명이 총살되고 130여명이 체포됐으며, 1966년 평북 박천군에서는 13명의 성도들이 5년간 야산 토굴에서 신양생활을 하다 적발돼 처형됐다.

이 신문은 로마 시대 수많은 박해에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한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도 40만여명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2008년 12월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한 담화에

서 "종교의 탑을 쓰고 불순 적대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는 비밀 지하교회 결성 음모를 적발했다"며 지하교회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붙잡히면 '간첩'으로 몰리고 고문을 당한다. 3년간 감옥에 갇혔던 김모(34) 씨가 국내 선교단체에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가장 힘든 것은 15일간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한 것이고, 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눈발을 기어다니게 하거나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어 바깥에 1시간을 세워놓고 전기곤봉으로 두드려 맞기도 했다고 한다.

신문은 한 탈북자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탈북한 올해 86세의 김모 할머니는 빗바랜 성경을 매일 품에 끼고 있는데, 고어체 한글로 쓰인 이 성경은 1936년판 신한문(鮮漢文) 관주(貫珠) 신약전서다. 조선(朝鮮) 경성(京城) 대영(大英)성

서공회에서 발견했다. 18세 때 고향 친구가 선물한 이 성경을 할머니는 북한에서의 삶을 포함해 이때까지 보존해 왔던 것이다.

1993년 사회안전부가 할머니의 집을 수색했을 때, 요원들이 들어닥치기 전 할머니는 성경을 뒤집어 숨에 묻었다. 폭우가 내린 며칠 뒤 성경을 꺼내자 통통 불어 있었다. 제일 앞인 창세기 쪽은 모두 망가졌고, 할머니는 이를 태워 재를 가족들과 나눠마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새벽이면 방 한가운데에 성경을 놓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기적' 이야기들을 들려줬다"고 한다. 딸이 사는 집에 갈 때는 성경을 허리춤에 숨기고 다니기도 했다. 할머니 가족은 1959년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돼 살던 평양에서 산간 오지로 추방됐다. 남편은 거기서 옥사했다.

(이대용 기자)

기감 전직감독들 성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직감독협의회(회장 김승현 감독)가 "우리는 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19일 총회 개최로 인한 감리교 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감독 35명 중 21명이 함께한 이번 성명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선 감리회를 구하는 길은 총회밖에 없다"는 데 이십전심으로 뜻을 같이 한다"며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방치하는 것은 주님과 역사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대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감독들은 감독회장 부재사태로 인한 행정공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감독회장 선거문제로 감리회 본부는 모든 행정이 마비되고, 총회가 닫힌 동안 그 기능을 대신하는 실행부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니 예·결산도 심의없이 집행되고 있고, 이를 감

사하는 감사위원회는 조직조차 못하고 있으며, 각 국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니 정책입안이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총회를 개최해 송풍을 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감독들은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고, 선거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장정 유권해석위원회나 심사재판위원회를

감리교 정상화의 길은 총회 개최 뿐이라 주장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도 없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 조직하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앞으로 이를 고집한다면 총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초법적으로 감리회를 이끌겠다는 만행"이라고 경고했다.

감독들은 현 시점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회 대표 스

로가 나서서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총회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직 감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선정된 감독회장 직무대리가 행정 복원과 재선거 실시를 전행했지만 갑자기 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를 회피하기 시작했다며 "시간은 흘러가고 감리회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를 구할 총회는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다 감리회가 파산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총회 대표들이 스스로 나서서 길밖에 없다"며 "우리 모두가 총회장으로 집결해야 하고, 감리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들은 총회 개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것이고, 총회 결의사항은 누구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규학 직무대리가 총회 개최를 불법으로 밝히고 참석하는 대

표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재선거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움받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법적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연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정돼 그 임기가 2010년 10월 까지인데도 우리의 권한이 타의에 의해 유린돼 왔다"며 "이제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회 개최가 적법하다는 근거로 교리와장정의 당회 소집 조항을 들고 있다. (이대용 기자)

백석-웨신총회, 교단 통합 논의

전권위 구성해 요구사항 조율키로

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예장 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 임원들이 16일 오전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교단 통합을 논의했다고 기독교연합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교단 통합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 교단은 각 교단별로 7명의 전권위원을 선발, 향후 양측의 요구 사항을

교화하면서 교단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들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웨신총회는 이미 증경총회장을 비롯해 7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백석총도 이미 구성된 15명의 전권위원회를 7명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또 이번 만남이 백석총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교단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

분 가량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유만석 총회장은 "교단간의 연합과 통합은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일로, 오늘의 첫 만남이 좋은 결실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했고 성흥경 총회장은 "백석총회는 이미 웨신에서 간 사람들도 많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낯설지 않아 반갑다. 전권위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은혜한인교회
Tel. 714-446-6200
담임 한기흥 목사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주	일	시간	프로그램
주일 1부	오전 8:00	Vision Center 본당	
	오전 10:0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2부	오전 11:30	Vision Center 본당	
	오전 12:0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3부	오전 12:00	Vision Center 본당	
	오전 12:3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4부	오전 2:30	Vision Center 본당 (열린예배)	
	오전 5:00	Vision Center 본당	

예배시간

주일 1부 오전 8:0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2부 오전 10:0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3부 오전 12:00 Vision Center 본당
주일 4부 오후 02:30 Vision Center 본당 (열린예배)

안기흥 목사 방송 설교

주	일	시간	프로그램
주	일	오전 8:30	CGN TV Ch18.4
	일	오전 8:30	Time Warner Ch658
수	일	오전 10:00	JSTV 미국전역 Ch668
	일	오전 10:00	JSTV 미국(Dishnet)
목	일	오전 11:30	뉴욕 CGN TV Ch63.3
	일	오전 05:30	크리스천애럴드방송 AM 1650
금	일	오전 10:00	San Diego Radio Seoul FM 98.1
	일	오전 10:20	KCBS Chicago AM 1590
토	일	오전 8:00	CIS 미국 (Direc TV) 미국전역 Ch2087
	일	오전 10:00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일	일	오전 1:30, 5:30, 9:40	JSTV 미국전역 Ch668
	일	오전 11:30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월	일	오전 05:30	CIS 미국 (Direc TV) 미국전역 Ch2087
	일	오전 5시(한국시간)	CIS 한국(국)
화	일	오전 10:00	San Diego Radio Seoul FM 98.1
	일	오전 11:30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www.gracewpc.com
Tel: (714) 446-1004
예배: 05:30am, 10am, 8pm

1부 8am | 2부 10am
3부 12noon
4부 2:30pm

KCMUSA-INTERNET
www.kcmusa.org
Tel: (714) 446-1004
CIS-한국(국)
www.cts.tv

은혜한인교회-INTERNET www.gracewpc.com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2월 1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뉴욕.뉴저지 교계, 아이티 위한 기도와 모금 진행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산하 교회 공문으로 동참 요청

12월 7.0 규모의 강진으로 20만 명이 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티 공화국을 위해 뉴욕.뉴저지 한인교계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는 15일 산하 교회에 아이티 돕기 성금 지원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KCBN과 힘을 합쳐, KCBN 방송을 통해 아이티 성금 모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신현택 목사가 담임하는 뉴욕성신교회, 지난 6년간 아이티 선교를 해온 에베에셀 선교교회도 15일 영어권예배, 17일 주일예배에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다. 또 아이티 선교를 감당해온 뉴욕신광교회도 긴급 구호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구세군한인교회도 본부 차원과

별도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각 기관 단체 모임에서도 기도와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플러싱 뿐 아니라 맨하탄에 위치한 청년 중심의 뉴프론티어초대교회도 17일 아이티를 위한 헌금 시간을 가졌다. 또한 뉴프론티어초대교회는 선교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을 아이티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뉴저지마미아뉴엘교회의 박병준 선교사와 뉴저지 늘푸른장로교회 조항석 담임 목사는 이번 지진 참사 직후 14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산 목사)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발해, 15일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아 기자)

킹 목사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기념예배와 생가 개방, 기념벽화 헌정 등 다양한 행사

지난 17일, MLK 내셔널 히스토리 사이트 방문자 센터 입구 반대쪽인 피스 플라자에 그려진 125 피트 길이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벽화가 헌정됐다.

이 벽화에는 인권운동가로서 킹 목사의 생애를 담고 있으며, 로자 파크 여사부터 파비 케네디까지 그리고 말콤 X부터 니나 사이몬의 얼굴 등이 그려져 있다. 에틀랜드 지역 유명 작가인 루이스 델사르테(Louis Delsarte) 씨가 제작했다.

또한 마틴루터킹 목사 기념행사가 16

일(토) 오후 2시 킹 목사가 담임했던 에베네저침례교회에서 열렸으며, 월요일 오전에 같은 곳에서 기념예배가 열렸다.

이외에도 마틴 루터 킹 Jr. 목사 생가를 시민들에게 18일 하루 동안 개방한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킹 목사가 12살부터 살았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생가 주소: 501 Auburn Ave. NE, Atlanta, GA, 30312)

(박현희 기자)



지난 17일, 헌정된 마틴 루터 킹Jr. 목사 기념 벽화. © AJC.com

2세 목회자가 보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주강사들.

KWMC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위원장 고인호 목사)가 협력하는 EM/CAARL Pastor's Conference(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서 열려 차세대 목회자들간에 네트워크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주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Our History and Our Gospel)"이며, 주강사로 Dr. Min Church(Covenant Fellowship

Church), Dr. Jeff Jue(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Dr. Paul Lim(Divinity School), Dr. Julius Kim(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Dr. Paul D. Kim (Renewal), Dr. Steve Park(Jubilee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교회(Korean-American church)의 역사와 그 역사속에서 어떤 영성과 사역들이 형성됐는지에 대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복음(Gospel)과 그 복음이 미주한인 목회자들의 설교와 사역, 성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1월 25-27일 와싱턴중앙교회서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Church), Rev. Stephen Ro(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등이 나선다. 고인호 목사는 "사역지는 외로운 곳이다. 고인호 목사는 "사역지는 외로운 곳이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그룹을 갖길 바란다."며 컨퍼런스를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

것이다. 고인호 목사는 "이 두 가지 주제는 함께 일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복음(his Gospel)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수록 그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Hkoh@pcanet.org(고인호 목사) (조요환 기자)

뉴저지초대 한규삼·뉴프론티어 류인현 목사 인터뷰

뉴프론티어초대 조직력이 분가 원인, 뉴저지초대는 다언어교회 개척 계획도

4년 전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맨하탄의 젊은이 50명이 시작한 젊은이공동체가 뉴프론티어초대교회(담임 류인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정식 독립 교회로 올 1월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뉴저지초대교회와 뉴프론티어초대교회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계를 갖고 당회를 대신할 이사회도 공동으로 구성해 교류, 협력해 나갈 것이다. 본지는 뉴저지초대교회의 한규삼 목사와 뉴프론티어초대교회 류인현 목사와 17일 뉴프론티어초대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고 권하고 싶은 정도이다.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다.

2. 독립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류: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듯,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또한 뉴저지초대교회의 좋은 것을 배워 맨하탄 정서에 맞게 적용하려고 한다. 순모임 교제로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천국 퍼스펙티브'도 사용하고 있다. 양육이나 선교도 배우고 돕는 모델로 나가려고 한다.



(오른쪽부터) 한규삼 목사, 류인현 목사.

1. 뉴프론티어초대교회 독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 뉴프론티어초대교회 성도들이 행정적, 재정적, 영적으로 성숙해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특히 뉴프론티어초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조직력이었다.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답을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었다. 그것이 판가름의 기준이 됐다.

4년간 이만한 규모를 갖추는 것도 어렵지만 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다.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뉴프론티어초대교회에 와서 배우고 가

3. 전략적 파트너십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 기존에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변경시켜 사용했다. 이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을 이양하고 뉴저지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한 후견도 하며 힘든 일은 같이 짊어지고 가는 방식이다.

4. 또 다른 교회 개척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EM(English Ministry)도 독립시키려 했으나 같이 있겠다 해서 독립성만 갖고 있다. 재정은 이미 독립한 상태이다.

한어권 교회를 분립 개척할 계획은 있다. 장승구 장로님은 10개 교회

를 개척할 목표를 갖고 있다. (웃음)

이건 꿈인데 뉴저지초대교회의 EM이 중심이 되어서 뉴프론티어초대교회와 함께 영어권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멀티에스닉처치(Multi-Ethnic Church)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교회가 개척될 것이니 이번 개척의 경험도 소중한 자원이겠다.

5. 뉴프론티어초대교회가 독립 후 새롭게 진행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류: 맨하탄의 지역 선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홈리스 사역, 다민족 선교 등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한다. 홈리스 사역을 하려고 보니 비전

이 있던 청년들이 이미 홈리스 사역을 하려고 모여 있기도 했다.

6. 뉴프론티어초대교회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류: 맨하탄젊은이공동체는 4년 전 50명으로 시작(담임 송용원 목사)해 제가 맡은 2007년 7월에는 200명 가량 나오고 있었다. 그때는 엔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킹스 칼리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가 많아져 2008년 2월 PS 11(The William T. Harris School, 주소 320 West 21st Street, NYC 10011) 공립학교로 옮겼다. 지금은 그때보다 3배가량 수가 늘었다. (오상아 기자)

샌라파엘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샌라파엘 한인장로교회는 1983년 부터 P.C.U.S.A 소속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합니다.

- 자격:**
- 1) PCUSA교단소속 혹은 PCUSA교단 Transfer가 법적으로 가능한분.
 - 2) 정규신학대학 M.Div 이상 학위 소지한분.
 - 3) 담임또는 부목사로서 4년이상 Full Time 목회경험이 있는분.
 - 4)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통하신분.
 - 5)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글과 영문)- www.pcusa.org/clc에서 P.I.F forms
 - 2) 최종학력 증명서
 - 3) 신앙 고백 및 목회철학 1통(한글과영문)
 - 4) 목회비전 1통
 - 5) 최근 6개월내 설교 CD 2부.
 - 6)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통-가족사진 1매(6개월이내)
 - 7) 추천서 4통(4통중 3통은 목회자로 한정하며, 추천자 밀봉날인 필수 혹은 추천인이 직접 메일로 보내셔도됩니다. 추천인 4명의 Contact Info를 이력서에 기재하여 먼저 서류를 접수하신후에, 추천서는 추후에 보내셔도 됩니다.(기일안에)

기타: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선임된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김일 장로(415-491-1932)

제출서류 마감 및 주소:

1. 마감일 없음, 단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검토를 시작하여 담임 목사를 선정할것임.
2.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pcsanrafael@yahoo.com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당신 가슴에 북한 향한 주님 뜻 품으라

북한선교대회 둘째날인 16일 저녁에는 전날 '크로싱'을 관람하며 북한 선교에 한껏 고무된 1세와 2세들이 시카고 한인교회로 찾아 왔다. 유상준 씨는 전날의 짧은 선교 보고에 이어 자신의 탈북 사역에 관해 간증했으며 윤 김 전도사는 모인 회중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에 도전을 던졌다. 대표적 북한인권운동가인 팀 피터스 선교사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현실에 관해 보고했다. 실제 탈북자, 한국 내 탈북자, 중국 내 탈북자를 망라하는 간증과 선교보고 후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기도회가 진행됐다.

〈저는 한 일 없어, 모든 것이 다 그분이 하시는 일〉
간증을 위해 강단에 올라 온 유상준 씨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은 탈북자들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데 이견 생명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작정 살 길을 찾아 가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탈북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인간이 스러지는 것을 보셨는가? 인간은 한계가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탈북할 때, 다른 북한 주민을 탈북시킬 때,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접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저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하려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분단 조국의 아픔을 아시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 달라. 기도만이 이들을 살리는 길”이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증거했

스 목회를 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에게 북한 이야기만 했다. 3년간 “귀찮게” 하자 동료들은 그만 만나면 피할 정도였다. 북한에 미친 그는 Kacy Basketball and Turkey Bowl을 기획해 유스 그룹 연합 모임을 만들었다. 유스 그룹이 즐겁게 즐기는 모임이었지만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유스들에게 북한 선교에 관해 도전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북한에 더 가까이 가 보자는 뜻에서 한국으로 갔다. 사회자가 “1.5세”라고 소개하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 정정한다. 그는 한국 말에 많이 서툴렀다. 그런 그가 자신이 한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3년동안 한 일은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

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딱딱프리게 되는 상황은 ‘왕따’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인 2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경의 대상이다. 이 둘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 것을 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동족이 있는 한국으로 보내라. 그들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라”고 도전했다. 그는 “저는 이제 26살 밖에 안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상준 씨의 관점에서 북한을 보고 자녀들을 하여금 북한을 품게 하라”고 보고를 끝맺었다.

〈인권의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
자신을 선교사이자 기독교운동가로 소개한 팀 피터스 선교사는 탈북한 여성들과 그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했다. 모든 탈북자들이 죽음과 인권 유린에 직면하지만 특히 여성들은 성노예로 매매되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세가 된다. 그는 “중국 국경 인근에 총 20여만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추산되며 이중 70%가 여성이며 2만4천명 정도 혹은 두배에 가까운 5만명 정도가 어린이라고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간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정신적 충격을 보고하는 동영상도 제시했다. 동영상 속의 여성은 자신이 돈에 의해 팔렸다는 사실에 자존감을 크게 훼손 당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조국까지 갔다. 그들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하루 하루를 살고 있었다.

‘꽃제비’로 유명한 탈북 어린이들의 실상을 보고했다. 피터스 선교사는 “국경 근처에 탈북자들을 위한 고아원이 있지만 수용 규모가 현저히 적다”면서 “미국의 모든 한인교회가 하나씩 고아원을 운영한다 해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어린이들이 겪는 생존과 자존의 위협을 하나하나 보고하면서 한인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는 북한 선교 관심자들이 이 3명의 강사들과 직접 면담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한인 2세들에게는 김 전도사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의 문호가 활짝 열려 있다.

우리는 하나! “Why Baptist”에 초점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목회자, 가족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을 했다.

SBC 한인목회자 신년하례회 삼버그 침례교회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는 미남침례회(SBC) 한인 목회자들이 삼버그침례교회(담임 김광섭 목사)에서 2010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며 연합과 우정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는 침례회 목회자 45여명과 그 가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인, 일본인 목회자들 가족도 참석해 예배드리고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미주일리노이침례교회의회가 17일 개최한 이날 신년하례예배는 삼버그침례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시작했다. 곳곳에서 따뜻한 인사와 교제가 오고 가는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 일본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었다. 로버트 게이티 목사는 아주 익숙하게 한국 음식들을 즐기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한인과 텔레야 될 수 없는 관계다. 그의 아버지는 초창기 한국 선교사였고 아들인 그 역시 어떤 의미에서 한국인 선교를 해 왔다 할 수 있다. 시카고 한인의 교회 개척을 돕고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일이 그가 자처한 몫이다. 그의 한국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어린이를 임양하는 것까지 나아갔다.

일본인 유교 교바리 목사는 시카고 지역

에 개척된 일본인 침례교회의 담임목회자다. 그는 삼버그침례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며 한인들과 가까워졌다. 삼버그침례교회는 한인교회가 개척 초기 미국인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 일본인 교회에 교회당을 빌려 주고 있다.

예배에서는 특별히 CMBA(Chicago Metropolitan Baptist Association)에서 30여년 동안 아시안 교회 개척과 멘토링을 담당해 온故 랜제이 캄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카고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던 1970년대 말부터 한인들의 교회 개척과 목회를 적극 지원해 온 캄 목사는 지병으로 지난 12월 세상을 떠났다. 한인 목회자들은 이날 예배에 참석한 캄 목사의 아내 윈디 캄 씨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캄 목사를 위한 선교기금을 만들어 고인의 뜻을 기리는 교회개척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주일리노이침례교회의회는 올해 'Why Baptist'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할 계획이다. 회장 김광섭 목사는 “교단과 교회 간에 교류와 연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우리는 왜 침례교인이어야 하는가, 침례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침례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목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침례교회의회는 매달 한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침례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북한선교대회 1세와 2세들에게 강한 선교적 도전



북한선교대회 둘째날은 기도와 찬양, 3명 강사의 간증과 선교 보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죽었고 자신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 탈북 사역을 하다 섬서로 영하 40도에 까지 이르는 내몽고에서 4개월간 감금돼 고초를 겪은 사람이 가진 정신적 충격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탈북자들이 탈북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획 탈북을 하는 동영상을 틀어 준 후, 그는 말했다. “이건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졸여지고 손에 땀이 나는 긴박한 동영상을 틀어 준 그는 오히려 무덤덤하기까지 했다. “(기획 탈북이 아닌) 많

다”며 다시 인사하고 간증을 마쳤다. 그가 머뭇거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보내라, 가게 하라, 권리를 포기하게 하라〉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신학생의 도전적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윤 김 전도사는 윗튼대학교를 졸업하고 무디신학교로 진학해 신학을 공부하다 북한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에 들어가 한국 내 탈북자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 북한의 실상을 들은 후, 인간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에 큰 도전을 받았다. 이후 시카고 지역에서 유

면서 그들에게 신앙적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김 전도사는 “제가 시카고에서 유스 목회자를 하며 알게 된 것은 유스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 40%는 하나님에 관해, 30%는 자녀를 위해 고생하는 부모에 관해, 30%는 유스에 관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들에게 남의 일에 헌신하라, 가난해지라”고 하면 아마 당장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도사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탈북

(김준형 기자)

우리는 주님 안의 한 몸

글렌브룩, 노스브룩 교회일치 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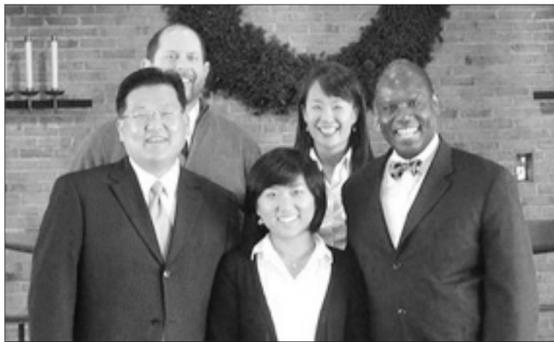
한 건물을 사용하는 미국인, 한인 두 회중이 지난 17일을 교회일치주일로 지키며 연합예배를 드렸다.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된 노스브룩연합감리교회와 한인들로 구성된 글렌브룩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일치와 평화를 노래했다. 설교는 노스브룩교회의 래리 피킨스 목

사와 글렌브룩교회의 백영민 목사가 함께 준비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가며 전했다.

글렌브룩교회의 어린이 합창단 점프가 특별찬양을 불러 박수를 받았고 성인들이 구성된 양 교회의 연합성가대가 예배의 모든 음악을 맡았다. 글렌브룩교회는 같은 교단인 미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노스브룩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두 교회는 한 교회에 속한 두 언어권 회중처럼 지내왔다. 오전 10시에는 미국인 회중들이 교회를 사용하고 오전 12시에는 한국인 회중이 교회를 사용했다.

(김준형 기자)



양 교회 회중을 이끌고 있는 교역자들. 앞줄부터 백영민 담임목사, 전주연 CM 전도사, 래리 피킨스 담임목사, 뒷줄부터 리안 쇼 YM 목사, 박정은 YM 전도사.

밀알 이사장에 전성철 목사 선임 오는 2월 10일 이사장 이취임식



전성철 신임 이사장

지난 12일 여수분교회에서 열린 시카고 밀알선교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여수분교회 전성철 목사가 뽑혔다.

전 목사는 고신대,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안수받았다. 맥코믹신학교(D.Min.)로 유학오며 이민 목회에 뛰어들어 여수분교회를 개척해 자체 성전을 보유한 규모있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제34회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도 지

낸 바 있다.

전 목사와 그가 시무하는 여수분교회는 과거부터 밀알선교단을 전적으로 후원해 왔다. 밀알선교단의 토요일에 교회를 개방해 왔으며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오는 2월 10일 저녁 8시 여수분교회에서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거행되며 서장권 목사가 이임하고 전성철 목사에게 취임한다.

한국 글로벌 비전기독교학교 사역자 청빙

한국의 음성과 문명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기독교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에서는 청소년 선교교육사역에 함께할 사역자들을 모집합니다.

1. 사역분야

- 1) 과목교사(영어로 수업가능한분으로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수학, 과학, 역사, 사회 분야
- 2) 생활관 부부 지도교사(간단한영어회화 가능자, 선교사, 목회자, 교회중직자 출신 환영, 초대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부부사역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1년이상 사역이 가능한분
 - 음주흡연을 하지않고 경건회 및 신앙지도 가능한분
 - 학생 가족사에서 별도의 생활지도교사 숙소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가능 한분

2. 처우

- 1) 교사: 숙소 및 1일 점심저녁 제공, 왕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 지원, 연봉 \$20,000.00 에서 \$25,000.00 지급, 주5일제, 방학휴가
- 2) 생활관부부지도교사: 생활관내 부부교사 거주, 1일 3식제공, 항공권제공(1년이상 근무시), 의료보험지원, 연봉\$10,000.00 에서 \$15,000.00 지급, 주5일 근무, 년간 6주휴가.
- 3) 자원봉사 사역자에게는 : 항공권, 숙소, 1일3식, 및 매월 \$500.00의 활동비 지급, 자원봉사자로 지원 하시는분 우선 선발 (최소 6개월 사역조건)

3.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가족 및 신앙간증 포함)
- 이력서에 소개된 학력 경력 증명자료
- 건강 진단서
- 여권사본

4. 연락처

- GEMGVCs 미주본부장: 1-951-704-6087
- 한국인사과장 이재운: 82-10-6625-3043
- E-mail: gemgvc@naver.com
- 홈페이지: www.gemgem.org

5. 모집기한

- 1) 2010 봄학기 시작사역자 : 2010 2월 10일까지 한국학교 부임 가능하도록 1월 31일까지 신청
- 2) 2010 가을학기 시작사역자: 2010 8월 1일까지 한국 학교 부임가능하도록 6월 30일까지 신청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음)

이동원 목사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동원 목사는 18일 상향소망장로교회 말씀축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동원 목사(지구총교회) 초청 주일말씀축제가 18일 상향소망장로교회(이동학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동원 목사는 ‘사람이 무엇인가?’(시편 1:1-9)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또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 성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전부일까. 이 목사는 “사람이 무엇인가?”(시편 1:1-9)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상향소망장로교회서 ‘회복’ 주제로 말씀축제>

로 대표적인 두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보고 자본을 조작하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하면서 “두 이데올로기 모두 인간이 돈에 의해 지배된다는 전제로 나왔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고 말했다.

는 질문은 시편8:4말씀(사람이 무엇이란 대 주께서 저를 생 각하시며 인자가 무엇 이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에서 첫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목사는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깊은 생각속에 지어진 존재”라며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예정, 사랑

속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만치 하지 않으신다. 돌보고자 하신다. 즉 사랑 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성경구절에 나타난 ‘사람’, ‘인자’는 흠으로 지어진 존재, 인간의 한계성, 연약성을 나타낸다. 흠으로 지어지고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깊은 예정을 갖고 지으셨고 주목 하고 주지하고 계신다.

이동원 목사는 “자폐아를 낳고나서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이라면서 기뻐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이동원 목사는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인간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창조의 독특성이다. 천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숙제”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에베소서 4:13)

세번째, 만물의 창치기로 지어진 존재이다. 이동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관리하라고 주셨다. 이것을 좁게 보면 나의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더 좁게 보면,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원 목사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인간은 ‘죄’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밝혔다.

기독교청소년극단 센트, 연례 오디션 개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독교청소년극단 센트(CENT: Christ's Evangelism Net Theater)는 1월 30일 오후 2시 FIT4U Studio(6158 Bollinger rd. San Jose, CA95129)에서 연례 오디션을 개최해 신

어, 댄서, 액터를 모집한다. 2004년 첫 오디션을 시작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을 향하여” 라는 퓨어아레 멤버

각자가 모두 도시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활동해온 센트는 다양한 댄스와 노래, 판토마임과 뮤지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베이징어 고등학교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독교 청소년문화를 주도해오고 있다. 문의) www.cent-theater.org, 408-807-5637 <김영민 기자>

예수전도단 <심형진 간사> 인터뷰

청년사역은 기독교의 미래

마음을 울리는 기도와 맑고 깊은 목소리로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전도단의 심형진 간사를 만나 청년사역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심 간사는 청년사역은 기독교의 미래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찬양인도자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것을 당부했다.

- 이번 미주 투어에 대한 소감은?

이번 미주 투어는 아틀란타, 워싱턴 DC, 뉴욕, LA, 시애틀을 거쳐 밴쿠버에서 집회를 갖는 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매우 컸던 시간이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집회를 통해 드러나듯 갈급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매우 많았고 그에 따른 청년들을 위한 예배 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 같다. - 각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찬양인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찬양 인도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겠지만 유혹이 많은 외로운 싸움이다. 찬양 인도자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예배를 사랑해야 한다. 찬양인도자들의 예배를 많이 듣고 영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미국에는 훌륭한 영어권 사역자들도 많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찬양을 위해

준비할 것은?



예수전도단 심형진 간사

찬양팀의 기도와 준비도 필요하지만 회중들의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 찬양팀과 회중들의 갈망함이 동떨어지면 은혜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들을 함께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과 멘트, 말씀 모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망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을 사랑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부가적인 것이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서로의 문이 열린다. 다음 세대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슬람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역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변화에 대해 둔감하면 안 된다. - 오늘 집회를 참석하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집회를 다해 찬양했는데 집회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어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흠뻑 젖어 삶으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뛰어들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 뛰어오르기 바란다. <김브라이언 기자>

현순호 칼럼

말 한 마디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즉 흘러간 세월, 화살, 그리고 말이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말이다. 잠언이라는 책에서는 “경우에 맞는 말은 좋은 약과 같다”고 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말이 양약으로 쓰여지는 경우 보다는 독약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살맛을 잃는다. 마치 홍수 때는 물이 차고 넘쳐 사람들이 빠져 죽고 가옥이 떠나려가는 와중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다는 아이러니다. 최정숙씨는 가난한 집에 6 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다. 가난에서 오는 끝 없는 부모의 싸움, 이름 모를 긴 병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집안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결국 정숙은 7살 때 애가 없는 삼촌의 집에 양 딸로 가게되었다. 말이 양 딸이지 심부름 하는 아이로 팔려간 셈이다. 오죽 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 해서 미군 부대 근처의 양식 집에 가정부로 들어 갔을까. 어느 날 술 취한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후에도 몇번 당하다 주인이 그 김새를 알고는 정숙을 쫓아냈다. 그간 일한 돈도 못받고 쫓겨난 소녀는 다른 양식집에 갔으나 미군들이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마찬가지로 지었다. 그녀는 독한 마음을 품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나 했다. 창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착한 미군을 만나 미국에 왔으나 여기에서 또 한 번 어두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이 옛 초등학교 여자 친구를 만나 바람이 났다. 옆에 사는 시부모님에게 상의 했으나 평상시 머누리를 무시하던 그들은 아들 편을 들면서 정숙

씨를 밀어 내는 눈치였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는 실오라기라도 잡듯이 텍사스에서 세탁소를 하는 먼 친척집을 찾아가 일을 도우며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런데 승람이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옛 어른들의 격언처럼 먼 친척도 미군인들보다 난 점은 없고 더 자신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했다. 혼자 자는 방에 자주 들어와 자기의 욕정을 풀고 낮에도 자기 아내가 잠깐 가계를 비우면 화장실로 끌고가서 자신의 성적 쾌락을 누렸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하지만 갈 곳 없는 그녀는 별수가 없었다. 마치 세계적인 명작 ‘부활’의 주인공인 카츄사가 부자집에 하녀로 들어 갔다가 주인의 조카에게 순정을 빼앗기고 계속 가난을 가지는 꼴을 보았다.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당한 피해를 복수하는 것 뿐이다. 어떤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 말을 해도 원망, 저주, 미움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 말하고도 놀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운명이 찾아왔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인교회 앞에 부흥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누굴까를 얻어 먹던 생각이 연상되어 한 번 가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 집회에서 속시원한 말을 감사예배에서 들었다.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뱃속에는 똥이 짙고 마음에는 욕심, 욕정, 음란, 시기, 질투, 원망이 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인간은 천사입니다” 라는 말은 정숙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지역 한인교회 총무

이에겐 큰 깨달음이었다. 그렇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찾아 해매면 인도해주고 물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성관계도 부부간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나이의 생각은 산산 조각이 나고 오히려 세상은 약자를 이용해서 강자들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꼭 찬 세상인 것을 체휼한 그녀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계속 그 교회에 다니다가 얼마 후 목사님의 소개로 상처 받은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를 통하여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작은 식당을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언제나 반려자를 배려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여분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에게 배돈다. 남편은 하루에도 3번 이상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거친 자기 손을 잡아줄 때 한없이 행복함을 느꼈다. 수 십년 험한 세상에서 거칠게 살면서 육체나 마음에 상처 뿐인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치유를 받는다. 또한 중요의 대상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붙잡혀 눈 녹듯이 없어지고 더욱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의 활력을 얻는다. 요즘은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세상이 너무도 밝게 보인다. 정숙씨에게는 잘 쓰는 말이 생겼다.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가 있는 곳에는 따뜻한 인정이 차고 넘친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어떤 표준을 채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위(표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백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냐, 아니면 달러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면적 1000 스퀘어피트와 1000 에이커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씨 100도와 섭씨 100도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은 모든 단위를 '믿음의 단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강국을 위해서는 믿음의 표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13만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기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3만2000명. 산술적으로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투를 위해 그들 중 단 300명만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표준(단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에 민감하기 보다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채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기드온은 '믿음'이라는 단위를 채택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계단으로 바뀌어 격인 전투에서 완승을 거둬줍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던 여리고성 공략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믿음의 단위를 채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매일 한바퀴씩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일곱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대승

에 심취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적었던 아이성에 대해서는 군사단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전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표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즉각 일 반적 단위를 맞췄습니다. 적어도 200 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단위가 아닌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라는 개념에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신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도 어린 아이를 포함한다면 약 만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민자들이 빨리 미국 땅에 정착하

“믿음의 표준을 채택하십시오”

뿐 아니라 이 산더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결심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은 믿음의 단위(표준)가 채택될 때 가능함을 역설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은 고침을 바라는 두 시각 장애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 두 시각 장애자는 "주여 믿나이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믿음의 단위를 선택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시각 장애자의 눈은 곧 밝아졌습니다(마태복음 9:29).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라"는

어 뿌리를 내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각종 표준(단위)에 빨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폐 단위인 달러에, 무게 단위인 파운드에, 면적 단위인 스퀘어피트에 익숙해 지지 않으면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강국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준(단위)에서 믿음의 단위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의 단위를 채택한 자에게만 강국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이성호 칼럼



이성호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기쁨의 언덕으로 목상을 하면서 전 도서를 읽어 보면 잊혀지는 사람의 허 망함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다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롭게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잊혀지는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가는 사랑의 동심원의 중심에서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한 연결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복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이복에 들어간 로버트 박씨는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사람

잊혀지는 사람, 이어지는 사랑

잊혀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은 여자 친구를 짝사랑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고, 그것이 우리 또래들한테는 정말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나서 그 친구를 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너, 지금도 그 아이 좋아하니?" 그러자 그 친구 씩 웃으면서 "잘 기억도 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이 계속 나오는 이어지는 사랑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살신성인의 사람들이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 후에 잊혀지고 말 덧없는 일들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의미있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순 칼럼



백순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2010년의 최대 및 최고의 화두는 경제회복과 국가안보입니다. 두 화두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찌 보면 국가안보가 우리생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경제회복은 삶의 영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안보는 생명의 존속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최대강국인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자초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더구나 어마어마한 국방비와 최고 첨단 기술을 갖

춘 방대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9.11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전쟁을 일으키며 멸종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경없는 적인 테러의 위협을 받아 발발 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능을 의심하게 합니다. 작년 성탄절날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델타비행기가 폭발물이 잠입되어 비행기폭파사건이 터질 뻔하였고, 몇 일

만, 자그마한 폭발물 하나의 비행기내 반입을 검색하지 못하고,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터넷통신의 방해를 막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온 몸을 투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비행기내 폭발물반입을 색출한다면, 첨단 검색장치를 개발하여 인터넷의 각종 해커들을 막는다면,

(2) 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슨 무장을 하여야 하며, (3) 집과 성을 어떻게 관리/경영 하는가 등의 3가지 분야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워야 할 기초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세우는 집은 반석위에 지은 집이고 그 반석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예수님

것임을 바울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의 영적 무장, 즉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기도와 간구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7가지의 영적 무장을 갖추었을 때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도 국가와 인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보증을 위한 마지막 근본원칙은 틀을 반석 위에 세우고 영적 무

인간의 안보를 위한 근본원칙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용적인 안보전략을 둘째의 길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시편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다고 읊으면서, 자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안보의 주요전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자식을 득복 많이 갖으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틀의 안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하나님의 산성 <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

전에는 세계적인 검색인터넷회사인 구글이 e-mail에 해커가 잠입하여 e-mail의 통신을 방해한다고 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자가 폭발테러라고 한다면 후자는 전자테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테러는 현대에 와서 국가의 안보, 아니 인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국가의 생존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런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와 인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

고도의 현대식 국방력을 기른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국가안보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국가안보확보 문제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국가/인간의 안보확보는 영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 국가와 인간의 안보를 확보하는 2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길은 먼저 국가와 인간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립하고 수행해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국가/인간안보의 근본원칙은 (1) 어떠한 기초위에 집을 세워야 하며,

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기쁜 것, 온전한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요약하면 국가운영과 인간생활의 틀이 모래가 아닌 반석, 즉 하나님의 뜻인 선과 기쁨과 온전이라는 기초위에 세워졌을 때 어떠한 광풍이나 테러가 몰려와도 꺾이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반석위에 세운 틀을 지키기 위한 완전무장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다"라고. 여호와와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장을 완비한 다음에 그 틀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친구간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인간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아 한 틀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상호 하게 되면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들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능히 극복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를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넘치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세들을,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안보의 근본원칙인 반석과 전신갑주와 사랑, 그리고 안보의 실용전략인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많은 자녀는 현대가 담명하고 있는 국가/인간의 안보에만 국한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영적전쟁의 근본원칙이요 실용 전략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 기독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 기독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2010년 불학기 신입생 모집> -총장 아브라함 최 목사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자생 칼럼



윤제필 대표원장 자생한방병원 풀러튼分院

어깨 위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목 뒷부분의 뻣근함이 오래도록 지속되는가? 이는 목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단순히 피로 근육이 뭉친 것쯤으로 여기고 이 통증을 방치하다가 목 디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

관으로 이 곡선이 직선으로 변형된다면?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해 목뼈는 물론 주변의 근육까지 무리가 갈 것이다. 단순히 목 뒤가 뻣근한 증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위로는 머리, 아래로는 흉추와 연결되어 있고 3만 가닥의 신경이 통과하는 목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 안과 질환, 불면증, 만성 감기, 목 디스크,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하루 종일 모니터에 눈을 고정시킨 채 키보드를 두드린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 오락기로 게임을 할 때 머리는 땅을 향한다. 머리를 한쪽으로 오래 기울이면 특정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오래 긴장한 근육은 서서히 딱딱하게 뭉치는데,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정렬이 무너

다. 게다가 목에 주름이 생기고, 지방 세포가 늘어나 가늘고 긴 목선은 점점 납의 예가 된다. 어디 이쁜일까? 머리의 하중이 점점 목으로 집중되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자세가 목 건강을 좌우한다 목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잘못된 자세에 있다. 당 신은 예외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

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몸을 살짝 뒤로 젖혀 등 전체가 등받이에 닿도록 해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목, 등, 허리는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의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목도 반듯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자. '바른 자세'를 익혔다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 공간의 환경을 바꿀 차례. 키보드와 마우스의 방향이 적절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목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도록 지그시 숙인다(이때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가볍게 잡는다). 왼쪽으로도 이 동작을 반복한다 다음 머리 뒤에서 양손을 깎지 끼고 아래로 지그시 누른다. 마지막으로 가슴 앞에서 양 엄지로 턱을 받치고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린다.

▲완벽한 베개를 만나는 방법 잠을 잘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누웠을 때 목뼈가 C 커브를 이루는 것. 전문가들은 베개만 바꿔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한다. 베개를 높게 베면 정상적인 목뼈의 C 커브가 반대로 꺾이면서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다. 베개의 높이가 8~10cm일 때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과 목뼈의 이상적인 커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너무 딱딱한 것, 지나치게 푹신한 것, 목만 받치는 목베개 등은 목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다.

자생한방병원 풀러튼分院 (714) 773-7000

목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 바로 잡는 법

전신마비, 호흡 곤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혹은 어깨에 곱 한 마리가 올라탄 듯 무겁고, 목 뒷부분이 항상 뻣근해 습관적으로 주무르지 않는지, 피곤해서 생기는 흔하다 흔한 통증이라 여기다가는 큰코다친다. 이는 목뼈가 보내는 이상 신호니, 지금이라도 목 건강을 위협하는 자세를 고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개숙인 현대인 사실, 우리 일상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는 일을 찾기로

진다. 목뼈를 텐트의 기둥에 비유하자면 근육은 테트를 지탱하는 받침이다. 목뼈가 휘는 것은 받침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텐트의 기둥이 휘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결과 머리가 거북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빠지면서 목의 C자형 커브가 일자로 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일자목'이다. 일자목 증후군에 걸리면 뒷목이 아프고 어깨에 통증이 온다. 심한 경우 머리 울렁, 두통, 현기증, 눈의 피로, 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날

는 자세를 체크해보길. 혹시 이 무거운 <려서리>를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거북이처럼 꼭 빼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침대에 엎드려 가슴 밑에 큰 베개를 받친 채 책을 읽지는 않는지... '등받이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앉으면 고개를 내밀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쉽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 뒤와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등을 벽에 기대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을 때

하지 않으면 목 근육에 부담이 가니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것은 정상적인 목의 C 커브를 무리해서 일자로 펴는 것과 같으므로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모니터 옆에 독서대를 구비할 것.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세일지라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1시간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목과 어깨를 좌우 상하로 돌리며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방 칼럼



봉승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과식을 하거나, 혹은 음식을 급하게 먹고 난 뒤 속이 갑갑하고, 배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다.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을 식적이라고 한다. 병의 수많은 원인 중에서 지금 만병의 근원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어쨌거나 어른들 말씀처럼 잘 먹어야 달이 없다는 말이다. 식적

막혀있으면 물이 체이게 된다. 즉 습기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이 이렇게 속에서 막히면, 구체적으로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식적으로 몸에 습이 쌓이면 5가지의 증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항상 눕고 싶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다. 이는 몸에 쌓인 습을 제거하려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자연히 체중이 증가한다. 간혹 '원장님 저는 밥을 한 손가락씩 밖에 안 먹는데 웬 살이 이렇게 많이 찌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진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니고 습이다. 흔히 장 마찰이 되면 화장실 문이 찌적하면서 열리듯이 몸에 습이 차면 나무가 뒤틀리듯 뼈가 뒤틀린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고 손이 부으면서 뼈가 튀어나오거나 류마티스 등으로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배에 물이 차서 심하면 중병으로 가게 된다. 그 외에 식적 환자는 감기가 아닌데도 목이 붓고 열이 나

음식이 병을 부른다 (식적)

은 만성 식적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음식으로 인해 생긴 모든 병을 '식적'이라고 한다. 간단히 손으로 명치끝을 눌러서 아프면 음식으로 인한 질환이다. 원래 비위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식 습관까지 좋지 않게 되면 먹은 음식의 기운이 소화관에 정체된다. 이때 소화기 탈린 음식찌꺼기가 위와 장에 남아 있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켜 소화불량과 복통, 대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막혀 있으면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심크대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먹은 것이 적(積)을 형성해서 막혀 있는 것이다. 몸의 심크대인 위장이

는 증상을 보인다. 중이염이나 비염 등의 만성염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체기를 자주 느끼고 늘 기운 없어하고 만성 소화 불량, 의욕 저하, 복통에 시달린다. 배에서 덩어리 등 단단한 것이 만져지거나 신물이 올라오고 입맛이 떨어져 체중이 줄기도 한다. 이들은 양방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대개는 이렇다 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식적 요통' '식적 두통'이라는 질병이 있다. '식적 요통'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10가지 요통 중 하나이다. 소화 불량, 만성 위염이 있거나 과식한 뒤 허리가 뻣근하게 아파오는 것이 주증상이다. <계속>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714)537-0800 / 엘바인 (949)355-5594

송태훈 칼럼



송태훈 목사 엘림코뮤니오

이기풍 목사의 증조부는 흥재의 난 당시 역적으로 몰려 고난을 당했다. 그때 사형을 당할 뻔 했으나 구사일생으로 황해도 구월산에 몸을 피했다. 그의 부친은 고향인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 신분을 감추고 농민으로 행세하며 살았다. 1868년 11월 21일, 이기풍 목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이기풍은 어려서부터 재치있고 슬기로운 신동으로 불렸다. 여섯 살 때는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으며, 목화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어 어른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열두살 때는 붓글씨 백일장에서 장원이 됐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증조부의 역적죄로 인해 이기풍은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의식있는 민중주의자였던 이기풍은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조선이 몰락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혈기방자한 청년 이기

풍의 성품을 급하고 관랄하게 만들었다. 술과 박치기의 명수로도 알려진 이기풍은 당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술이 가득 취해 평양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마침 평양좌수의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도도하게 말을 탄 것에 비위가 상하자 그는 평양좌수를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께 돌 공격을 감행했던 백인이 서투른 조선말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있었다. 성격이 고약한 청년 이기풍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향해 다시 돌을 날렸다. 단진 돌은 성경을 가르치던 마포삼열 선교사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땅바닥에 거꾸러져 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 바닥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군중들은 모두 두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전도자 김석필은 그런 이기풍의 손목을 잡고 선교사 스왈튼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기풍의 진솔한 자백을 들은 스왈튼 선교사는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요. 형제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소"라고 말했다. 이기풍은 지난

신동이라 불렀던 이기풍의 회개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이 사건으로 청년 이기풍은 석달 동안이나 목에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1885년 어느 날 이기풍은 길거리에서 생전 처음으로 코가 큰 백인을 만난다. 한쪽에서는 보기도 큰 체구인데다 도도한 몸짓으로 가슴을 내밀고 가는 모습이 이기풍의 비위를 건드렸다. "저 양코배기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까? 저것들도 날도둑놈들이 아닌가? 저 놈들을 우리 나라에서 하루바빠 몰아내자"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이기풍은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그 백인(마포삼열 선교사)의 집에 몰래가 돌을 우박같이 쏟아부었다.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심하게 났지만, 준비한 돌을 모두 던져도 인기척이 없었다. 거만한 양코배기와 직접 대결하지 못한 것이 분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한달이 지난 어느 날, 장터를 건들거리며 지나던 청년 이기풍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친구들과 합

려워서 어울렸고, 이기풍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 자리를 떠났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가 살던 평양성에도 전쟁이 극심해졌다. 집집마다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허덕이게 됐다. 방 안에 혼자 박혀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원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고만장했던 패기도 모두 사라지고 풀이 꺾인 채 그곳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기풍은 친구들의 권유로 담배대에 그림을 새겨 팔기로 했다. 어느 날 담배대를 한 묶음 손에 들고 힘없이 걸어가다 길가에서 코큰 스왈튼(Swallen) 선교사를 보게 된다. 이기풍은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평양에서 돌로 친 양코배기의 화신이 원산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기풍의 양심은 갑자기 괴로워졌고, 꿈에서 자신을 나무라 는 사람(예수)을 만나게 된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 되도록 과거에 저지른 죄를 회개했다. 지난날 저지른

날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저지른 죄를 스왈튼에게 모두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1898년부터 함경도 일대에서 성경 반포 및 전도 사역을 하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1907년에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인 중 한 사람으로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돼, 장로교단의 효시인 독노회(獨老會)가 조직되면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됐다. 1919년 광주 북문내교회 초대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주 선교에는 늘 관심을 기울였다. 1920년 전라도 장로회총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神社參拜)에 완강히 거부하며 호남지방 교회 지도자들과 반대투쟁을 하다 체포돼,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1942년 6월 20일 오전 8시에 숨을 거뒀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성경의 강력한 권고와 사역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원하시면 세상에서 막 살았던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advertisement. Includes list of services like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and SKMAX Toner products with a special sale offer.

MIDWAY CAR RENTAL advertisement. Features a car rental sign, a man's portrait, and text promoting economic mileage, car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213.487.4700.



“단순한 SF 영화” VS “위험한 범신론 사상”

‘아바타 열풍’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교계도 관심

영화 ‘아바타’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헐리우드 SF 블록버스터인가, 아니면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인가? 외계 행성 ‘판도라’에서 모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나비족’, 그리고 이 나비족과 인간의 DNA를 합성해 얻어진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몸과 인생을 얻은 한 청년. 조금만 주의 기울인다면 쉽사리 읽어낼 수 있는 영화 ‘아바타’의 범신론 또는 뉴에이지 코드가.

영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명백한 반기독교적 영화는 아니면서, 어딘지 모르게 위험해 보이는 ‘아바타’의 아슬아슬한 세계관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두고 세계 기독교계도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화 ‘아바타’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이 영화가 ‘타이타닉’과 ‘터미네이터’ 등 지극히 대중적인 작품들로 유명세를 얻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며, 영화가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든 간에 흥미 유발을 최고의 미덕으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라고 받아들인다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영화는 영화일 뿐 심각해지지 말자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최대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천티투데이 온라인판은 ‘아바타’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범신론적 분위기에 대한 경계도 지나치다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물론 대자연 자체인지, 혹은 대자연의 지키는 정령인지 모를 여신 ‘에이와’를 숭배하고, 영혼

을 지닌 판도라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과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비족들의 삶의 모습이 영화 전반에 흐르며 묘사되고 있다. 또 보수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섬뜩하게 느껴질 만한 에이와 숭배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고는 ‘아바타’에 나타난 이같은 자연 숭배의 모습은 오늘날 특정한 유사 종교나 마법 등의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묘사되고 있기보다는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으며, 에이와도 규정되기 힘든 불분명한 존재로 영화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어, ‘열린’ 해석을 남겨 놓고 있다고 평했다. 에이와를 ‘뉴에이지의 여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바타’란 영화의 거대한 판타지를 이루는 일부로서 해석한다면 크게 논란 삼을 만한 문제가 못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고는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갖게 만드는 의문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생각할 만한 거리를 제공받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나비족이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주인공이 나비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등 토론해 볼 만한 주제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헐리우드식 피상적 플롯에 갇혀 그 빛을 온전히 발하고 있지 못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약자에 대한 침탈, 자연 파괴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도 -감독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세계 전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아바타’. 한국에서도 이미 지난 주 8백만 관객을 돌파하며 외화 사상 첫 1천만 관객 동원 기록을 일두고 있다.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묵상할 만한 주제가 된다고 기고는 밝혔다. 물론 그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한편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어떤 사상을 사람들이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중 문화의 위험성이자 위험성이다. 오늘날 대중 문화란 가면을 쓰고 각종 세속주의 사상과 음란과 죄악의 문화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고가 내포하는 위험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바타’는 비록 최근 논란이 됐던 ‘다빈치 코드’처럼 노골적인 반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만한 문화 현상이라는 입장도 있다.

최근 교황청을 비롯한 미국 보수 교계가 ‘아바타’의 전 세계적 흥행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종교 대신 자연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영화”라고 비난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영화가 이룩한 놀라운 영상 기술의 진보와, 친환경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화에 드러난 범신론적 코드에 대해서는 그저 재미를 위한 요소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면이 없지 않다고 평했다.

교황청 언론인 로세르바도레 로마노와 바티칸 라디오는 영화가 “자연 숭배와 관련된 감신술에 빠져 있으며 생태계를 새 밀레니엄 종교로 변모시키는 모든 유사 독트린을 교묘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을 ‘새로운 신’으로 대체시킬 위험에 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평소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교황청의 설명이다.

미국 보수 교계 역시 “자연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이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며 “영화는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범신론적 사상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고 이는 다분히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아바타라는 설정 자체가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공존이라는 뉴에이지적 사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냐는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바타’의 가공의 행성 판도라에 대륙된 일부 관객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아바타’에 담긴 세계관을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은 영화가 흥행가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한 아마도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아바타’의 세계를 연출했는지 간에 그의 손을 떠난 순간 영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기독교인 관객들의 몫이다. ‘아바타’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그야말로 경이 그 자체다. 어떤 이들은 ‘아바타’가 놀라운 시각 효과로 전에는 미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의 경지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체험을 즐기려는 목적에서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영화를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견해다. <손현정 기자>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밍 생등심 프라이밍 갈비살 샤브 샤브	프라이밍 꽃살 초이스 햄갈비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오리고기 흑염소 돈까스/비프까스
-------------------------------	-----------------------------------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김기형 대표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중 장거리 및 귀국이사
해외이사 문의 환영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20~30야드 더 멀리

Carbite 맞춤 드라이브

파격 SALE

\$500 → \$149
\$300 → \$99

한.불.보.장
20-30야드 더 멀리
나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EAGLE GOLF 213-858-7979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웨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컴퓨터의 모든것

Computer & DVR

- 출장수기 once \$29, monthly \$50
- 컴퓨터 판매 - DVR 판매, 수리
- 인터넷(Virus) 문제해결 - 4ch DVR \$599부터

James Oh **213.814.9004** / www.comdvr.com
3200 Wilshire Blvd #111, LA CA 9001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타이밍벨트
- 튜업.정비

10% 할인

\$12.99 *tax 6cyl.
\$ 9.99 *tax 4cyl.
\$14.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결혼 꽃 전문 꽃어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MR 박은철 대표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 Foreign & Domestic Car
- ◆ 새 유리 & 중고 유리
-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 무료 전화 견적
- ◆ Low, Low Prices
-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 Stone Damage 수리

둘 맞는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카펫 클리닝

트럭마운트, 고온 스팀샴푸, 의자, 쇼파,
타일 등, 바닥왁스 (본인 직접시공, 성실 봉사)

213-839-0300, 818-419-5548
101 CLEANING 서비스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성실하게 저렴하게

(714) 749-6406

K ONE Plumbing

-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 ✓ 리파이핑 무료 견적
-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NIA, SAMSUNG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Joseph INTERIOR

요셉 인테리어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잇
- 페리, 텍크, 웬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물당, 페인팅 (아우트,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323.788.8689 김에스터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자체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라이선스 보행, 완벽”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 200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2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플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TEL : 213-388-1000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USA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1-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Hit Hit Hit

아이토크비비가 히트상품인 이유!
로컬/장거리/국제전화까지 무제한

첫째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24.99 /월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둘째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행사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금 가입하시면,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30일 환불보장****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입 및 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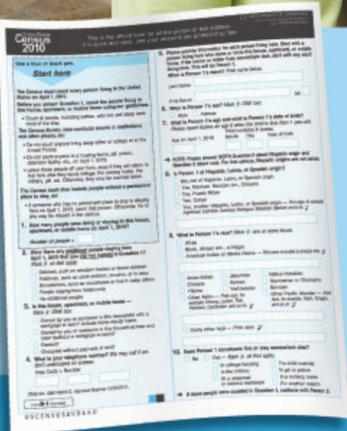
1 800 872 2902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렌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